

2012년 6월 8일 공보 2012-6-12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2년 6월 8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이상형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leesh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다.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출 둔화 등으로 약화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 리스크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 성장률						유럽국가 CDS 프리미엄				
	(전기비연율, %)						(기말 기준, bp)				
	10.4/4	11.1/4	2/4	3/4	4/4	12/1/4	12.3월	4월	5월	6.7일	
선진국 ¹⁾	1.6	1.1	0.8	2.2	0.8	1.2	포르투갈	1,070	954	1,170	1,094
미국	2.3	0.4	1.3	1.8	3.0	1.9	스페인	436	476	599	572
유로지역 ²⁾	2.2	2.4	1.6	1.3	0.7	-0.1	이탈리아	395	445	565	532
일본	-0.1	-7.7	-1.7	7.8	0.1	4.7	아일랜드	573	565	723	680
신흥시장국 ¹⁾	8.9	7.0	5.9	5.3	5.2	6.1					
중국 ²⁾	9.8	9.7	9.5	9.1	8.9	8.1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2.4월)

2) 전년동기비

자료: IMF, Bloomberg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로 전환하면서 미약하나마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고용 면에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점차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위험요인 증대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11.3/4	4/4	12.1/4	12.2월	3월	4월	5월	
GDP 성장률	6.3	3.6	3.6	3.3	2.8	-	-	-	-	-
GDP 민간소비	4.4	2.3	2.1	1.1	1.6	-	-	-	-	-
소매판매 (S.A, 전기비)	6.7	4.3	4.7	1.9	2.0	5.4	0.1	0.4
GDP 설비투자	25.7	3.7	1.2	-3.3	8.6	-	-	-	-	-
설비투자지수 (S.A, 전기비)	24.2	0.7	-3.1	-4.7	9.4	24.4	1.5	5.0
GDP 건설투자	-3.7	-5.0	-4.0	-2.1	1.5	-	-	-	-	-
건설기성액 (S.A, 전기비)	-3.3	-6.7	-8.4	-0.5	-3.7	9.0	-7.6	-7.5
수출(통관) (일평균, 억달러)	28.3	19.0	21.4	9.0	3.0	20.4	-1.5	-4.8	-0.4	..
제조업 생산 (S.A, 전기비)	16.8	7.0	5.3	5.3	4.2	15.2	0.7	0.0
서비스업 생산	3.9	3.3	4.5	2.7	2.5	5.6	1.6	1.0
취업자수 증감 ¹⁾ (공공부문 ²⁾ 제외)	323	415	363	474	467	447	419	455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압력,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2.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3.4	3.1	2.6	2.5	2.5
(전월비)	(0.5)	(0.4)	(-0.1)	(0.0)	(0.2)
▪ 개인서비스	3.4	3.0	0.7	0.7	0.6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3.2	2.5	1.9	1.8	1.6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2.5	2.6	1.7	1.6	1.5

-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멈추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모두 둔화되었다.

주택가격상승률

	(전월비, %)				
	12.1월	2월	3월	4월	5월
주택 매매가격	0.2 (0.2)	0.2 (0.2)	0.2 (0.2)	0.1 (0.1)	0.0 (0.0)
▪ 서울	-0.1 (-0.2)	-0.1 (-0.1)	-0.1 (-0.2)	-0.3 (-0.4)	-0.2 (-0.3)
▪ 경기	-0.2 (-0.2)	0.0 (-0.1)	-0.2 (-0.2)	-0.3 (-0.3)	-0.2 (-0.2)
▪ 지방	0.5 (0.6)	0.4 (0.5)	0.4 (0.6)	0.5 (0.7)	0.3 (0.3)
주택 전세가격	0.2 (0.3)	0.4 (0.4)	0.5 (0.6)	0.4 (0.5)	0.2 (0.2)
▪ 서울	0.0 (-0.1)	0.2 (0.2)	0.3 (0.2)	0.1 (0.0)	0.0 (-0.1)
▪ 경기	-0.1 (-0.1)	0.2 (0.3)	0.4 (0.4)	0.1 (0.2)	-0.1 (0.0)
▪ 지방	0.6 (0.7)	0.5 (0.6)	0.7 (0.8)	0.9 (1.1)	0.4 (0.5)

주 : () 내는 아파트 기준
자료 : 국민은행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과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도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금리, 주가 및 환율¹⁾

	12.1월	2월	3월	4월	5월	6.7일
CD(91일)금리(%)	3.54	3.54	3.55	3.54	3.54	3.54
국고채(3년)금리(%)	3.38	3.45	3.55	3.45	3.32	3.30
KOSPI지수	1,955.8	2,030.3	2,014.0	1,982.0	1,843.5	1,848.0
원/달러 환율	1,123.3	1,118.7	1,133.0	1,130.0	1,180.3	1,171.5

주 : 1) 기말기준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